



문덕철새보호구



노랑부리백로



저어새와 누르삿저어새무리

문덕철새보호구는 조선서해안의 평안남도 문덕군에 위치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람사르대습지), 동아시아-오세안주철새이동경로지역망으로 선정된 문덕철새보호구는 많은 종류의 새들의 서식지로 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의 보호종새류 가운데서 물개리, 흰두루미, 재두루미 등 10여종이 이곳을 정기적인 서식지로 이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세계적인 보호종으로 알려진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도 이 일대를 이동도중과

번식기간에 먹이터로 이용하고 있다.

문덕철새보호구에 사철 수많은 철새들이 날아드는것은 지리적위치로서만이 아니라 좋은 생태환경과도 밀접히 련관되어 있다.

조국에서는 이미 주체84(1995)년에 조선서해안의 청천강하류일대의 수천정보에 달하는 넓은 지역을 문덕철새보호구로 지정하였다.

뿐만아니라 이 일대의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도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가지 무척추동물들에 대한 보호증식과 함께 수산증식사업도 적극 벌려 새들에게 풍부한 먹이조건을 마련해주고 있다.

조국에서는 보호구일대에 펼쳐진 드넓은 갈숲을 비롯하여 갖가지 식물들에 대한 보존과 관리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 새들에게 더없이 좋은 은신처가 되게 하고 있다.

깨끗한 환경과 생물다양성으로 하여 문덕철새보호구는 새들의 보금자리로 되고 있다.

* * *



해마다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색가라지를 끼운 도요새들이 문덕철새보호구에서 관찰되고 있다.



문덕 철새 보호구의 습지는 주체107(2018)년 1월에 조국에서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 4월에는 동아시아-오세안주철새이동경로지역망에 등록되었다.

